

# 구세주가 승리의 영을 부어주어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 승리의 영이 생명과일이므로 사망의 영을 제거합니다

**부활은 사망권세를 이긴 구세주가 백보좌 심판 때에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이라야 성경이지 신약은 가짜 구세주, 예수를 중심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로 전부 거짓말입니다. 구약성경에 '너희는 시집가고 장가 가지 말라.' 그것이 원래 하나님 종교요, 그것이 옛날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그대로 신약에는 부활이라는 말씀 있죠? 예수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신약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세주가 나타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부활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마귀의 세력, 사망권세를 이긴 이긴자라야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구약성경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된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조금 거짓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죄인들이 썼고, 죄인들의 주체 영은 마귀의 영이며 그 마귀의 영이 그 마음을 조종해서 썼기 때문에 마귀의 뜻하는 바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흠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살을 흠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흠으로 사람의 코도, 사람의 입도, 사람의 심장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흠으로 사람의 장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신장, 간, 폐와 같은 것을 흠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참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었던 아담과 해와의 피로 만들어진 몸이 오늘날 인간들의 몸입니다. 즉,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서에는 아담과 해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피의 작용이죠? 그런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 라고 써어 있으며, 창세기서 9장 4절에는 '생명이 되는 피째 고기를 먹지 마라' 즉, 고기 속의 피는 생명이니까 피째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절에는, 모든 동물의 피를 먹지 않았습니.

### 피는 생명이요,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몸에서 하나님의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 속에 함유돼 있다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빗물과 함께 생명의 물질이 땅에 떨어져서 풀이 살고 곡식이 살고 나무가 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은 잘 알지만 비가 오고



구세주 조희성님

나면 모라든지 곡식들의 그 노랑던 이 파리가 시퍼레집니다. 그것이 바로 공기 속에 함유돼 있는 인간 속에서 발출된 생명의 물질이 빗물과 함께 떨어져서 노랑던 모가 파래지고 모든 곡식들, 배추와 같은 곡식들이 전부 다 파랗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료를 줘서 시퍼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와야 시퍼렇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은 확실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식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너희 가운데 하나

님이 계시니라.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때부터 우리민족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한문자로 '인내천(人乃天)'이라고 하는데 다른 민족 가운데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 가운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 한민족한테는 항상 옛날부터 같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

다.

**구세주가 승리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어 하나님을 만듭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구세주가 온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바로 구세주가 승리의 영을 부어주어 사람 속에 있는 사망의 영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사람을 전부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제단만 나오면 다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제단에 나오다가 안 나온다든지 하면 아랫목 지옥에 갑니다. 지옥 아랫목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제단에 끝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자식인 하나님이 되어서 하늘나라인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말씀 중에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은 마귀 때에 구세주가 부어주는 승리의 영입니다. 승리의 영을 부어 주어 사람 속에 있는 사망의 신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죽여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인 승리의 영을 부어주어 승리의 영을 심어주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되려면 죄인 속에 있는 사망의 영을 없애버려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0절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리니 피와 불과 열기가동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이 세 가지 성령이 내리는 것이 참 성령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만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

**구원론의 말씀 중에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은 마귀 때에 구세주가 부어주는 승리의 영입니다. 승리의 영을 부어주어 사람 속에 있는 사망의 신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죽여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인 승리의 영을 부어주어 승리의 영을 심어주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서 거기에 대한 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나 하면 고린도전서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치 못한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못하게 역사했던 것이 전부 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닙니다. 진짜 온전한 성령은 불 성신, 물질신, 이슬성신입니다. 구세주가 말세에 나타나서 이것을 전부 가리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가 가리쳐주는 대로 배워서 구세주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감모이슬성신까지 받아야 합니다.\*

2003년 4월 2일 말씀 중에서

### 조희성님의 발자취

# 바람 앞에 촛불 같은 포로 신세

부산 가야수용소에서 고된 노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황은 점점 불리하여 포로들을 어디론가 옮긴다는 소문이 돌았다. '오끼나와로 간다, 하와이로 간다, 괌으로 간다, 바다에 뿔뿔이 흩날려 버릴 것이다.' 라는 등 구구한 소리와 억측들이 난무하였다. 이윽고 음력 정월 초하룻날이 되자 소문이 사실이 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상륙함에 몸을 실었다. 앞으로 닥쳐올 운명 앞에 초연(超然)한 자세로 몸을 실었다. 5000여 명을 태운 상륙함은 영화관, 교회 등의 시설을 갖춘 큰 군함이었다.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그 큰 군함 화물칸에 포로들을 틀에 끼어 들어갔다. 한참 지나 부두를 떠나는 항해의 뱃고동이 울렸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가를 알 수는 없지만, 끼니때마다 5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이 나무로 채조된 둥근 밥통에 담겨 크레인에 의하여 밧줄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식사를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걸쳐 배식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동안 배고픔을 참지 못한 많은 포로들이 일시에 몰려 그 큰 밥통에 매달려 손으로 밥을 퍼서 먹는 고로 힘이 약한 자는 밑에 깔려서 죽어가고 힘이 강한 자는 밥을 실컷 먹는 일대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그로 인해 밑에 깔려 죽은 자가 수십 명이었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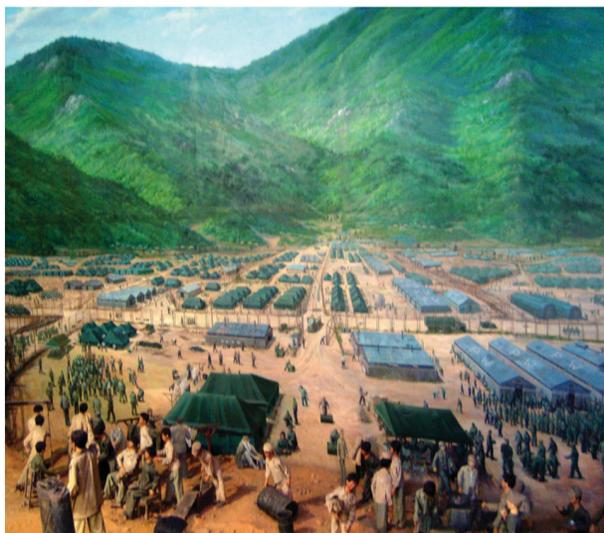
다. 이러한 아수라장 끝에 도착한 곳이 알 수 없는 외딴 섬이었다.

###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생활

전혀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포로를 실은 상륙함이 닿을 내리며 정박하는 것을 보아 목격자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마침 한 겨울이라 날씨가 너무 추웠다. 작은 배로 옮겨 타는 구름사다리 바다에 바닷물이 튀었는지 얼어붙어 몹시 미끄러웠다. 바로 앞에 내리는 사람이 미끄러져 바다로 빠졌으나 아무도 구조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전쟁 와중에 포로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

큰 배 밑에 떨어지면 배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을 잘 하는 자도 살아 나오기 어렵다.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단단히 쥐가면서 조심조심하여 구름다리를 건너서 작은 배로, 작은 배에서 육지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남쪽 끝 경상남도 거제도군 일운면 고현리의 거제도 포로수용소였다.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 두 번째로 큰 섬이며, 부산, 진해, 마산, 충무와 인접하고 있다. 1970년경에 육지인 통영군과 육교를 건설하였고 면적은 389㎢이다. 6.25 당시에는 상주 인구가 약 10만을 헤아렸으나, 근래는 삼성과 대우 두 조선소가 생겨, 인구



거제도 포로수용소

가 많이 늘어난 지역인데, 유엔군이 포로수용소를 3년 간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이곳에서 이 사람은 포로 아닌 포로로서 무사무시한 못매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3년을 지내게 된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살해의 위험과 집단 구타, 추위, 굶주리는 등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생활을 해야 했다. 잠을 잘 때는 논바

닥 위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한 사람이 누우면 그 다음 사람은 발쪽에 머리를 두고 눕고, 또 바로 누우면 그 다음은 거꾸로 눕고 하여, 수백 명이 전부 엮여가 가마니에 닿게 모로 누워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담요를 한 장씩 덮고 잠을 자는데 몇 분만 지나면 체온에 의하여 가마니에 붙어있던 얼음이 녹아 가마니가 축축하게 젖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누운 사람들의

발 냄새가 코를 찌러오는 것이었다. 그러한 악취와 추위 속에서도 군소리조차 하지 못하고 잠을 자야 했다.

### 5천 명을 울고 웃기는 61수용소 통솔자로

이 사람이 소속된 수용소는 61포로수용소였다. 1개 수용소 포로 인원은 통상 5천 명이였다. 각 포로수용소에서는 포로 중에서 5천 명을 통솔할 책임자를 뽑았는데, 이 사람이 소속된 61포로수용소에서 통솔책임자를 뽑게 되었다. 전체 포로 중에 먼저 후보자 50명을 뽑는 중에 이 사람이 뽑혔고, 다음 10명을 뽑는데도 이 사람이 뽑혔다. 나중에 5명을, 다음은 2명을, 그리고 마지막 한 명에 바로 이 사람이 뽑히게 되었다. 5천 명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막강한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휘두르는 통솔 책임자를 어떤 개인이 지명함도 아니요, 5천 명의 의사를 종합하여 투표와 거수 등으로 나이스무 살의 어린 이 사람을 뽑았던 것이었다.

그 속에는 대학교수, 목사 등 사회에서 활약하던 지도급 인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뽑히게 된 것은 전쟁 중에 사신을 남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담력과 인격 수양이 충분히 갖춰진 것도 있었지만, 거기서도 회생하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하여간 3년 동안 61포로수용소를 좌지우지하는 동안 다른 수용소는 책임자가 몇 개월 만에 바뀌었지만, 이 사람이 맡은 61포로수용소만은 책임자가 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 사람 목숨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느끼다

그렇다고는 하나 61포로수용소 안에는 극 죄인에게 물들은 사람과 빨갱들이 많아 어느 수용소보다 우익계 반공 청년들이 학살을 빈번하게 당하고 보복을 받으며 가장 곤욕을 치른 수용소였다. 수시로 빨갱이들이 난동을 일으켜 우익계 청년들을 숙청시켜 주도권을 잡고, 태극기를 내리고 빨갱이 깃발을 울렸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 목숨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처참한 음모가 벌어졌다. 빨갱이들의 제 1의 표적이 대동군 치안대장인 이 사람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모포로 뒤집어 씌워놓고 수십 명이 닥치는 대로 때리며 발로 밟아 짓이키기도 했다. 그런데도 갈비뼈 하나 상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항상 지켜주셨던 것이라 본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골병이 들어서 불구가 되었을 것이다.\*